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 스님 신문물 접한 통로는 추사

조선 후기 남종화의 우뚝한 거인, 소치 허련(1809-1893)은 시·서·화에 능했던 인물이다. 그는 초의와의 첫 인연을 “음미년(1835) 대동사 한산전으로 초의스님을 찾아 갔다. (나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방을 빌려주어 머물게”했다고 <몽연록>에 기록했다.

이후 소치는 초의의 문하에서 불화를 공부하는 한편 스승 초의의 소개로 해남 윤씨 가장본인 공재화첩과 <고씨화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등, 그의 예술적 안목은 날로 높아졌다. 1938년 초의는 금강산을 유람하고, 이듬해 추사에게 소치가 임포한 그림을 보여 주었다.

한 눈에 소치의 재주를 알아본 추사는 “허군의 그림 격조는 거듭 볼수록 더욱 묘해 이미 격을 이루었다고 할 만 합니다”라고 평가하고, 초의에게 “가령 (소치가) 한양에서 지낸다면 그의 향상은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이라” 하였다. 이 편지를 받은 초의는 급히 소치의 상경을 재촉하는 편지를 보낸다.

이에 소치는 1839년 8월, 내종형을 따라 상경하던 길에 소사 근처에서 우연히 초의를 만나 함께 칠원점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들의 벼간 해후의 감격은 언설로 표현하기 어려웠으리라. 한편 소치가 추사 댁에 머물며 식견을 탐마한지 근 일 여년 만에 추사는 제주로 유배되는 등, 혹독한 정치적 시련기를 겪는다. 하지만 소치는 유배지 제주를 왕래하며 스승 곁에서 화삼매(畫三昧)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추사의 편지에 종종 언급되었는데, 특히 <완당전집> <여초의> 27신과 <나가묵언첩>, <영해태운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스승 곁에서 그림 수업에 열중했던 정황은 상세한데 그 내



추사의 편지가 있는 <나가묵언첩>

주자 친필 ‘수’ 표류로 분실

소치의 안목 높아짐에 자부심

음은 이랬다.

지난번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주자선생이 쓴 목숨수(壽)자 및 시현력을 동봉해 보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게 배가 바람에 멀리 표류되어 편지와 물건이 전달되지 못한 것은 비록 예상한 일이지만 이것에 놀라서 아직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배안의 사람들은 끝내 관음경 한 구절도 읽을 줄 아는 자가 없었던 말입니다. 봄날이 날로 화창한데 스님의 형편은 길하고 상서로워 서로 들려줄 만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면(河面)은 쟁그림도 없는 것인가요. 이 몸은 더욱더 의욕이 없어지니 산중의 승려에게 이야기하기가 자못 부끄러워 낮이 붉어질 지경입니다. 날마다 허 소치에게 시달림을 받아 이 병든 눈과 팔을 애써 견디어 가며 쓴 병첩이 상자에 가

득 차고 바구니에 가득합니다. 모두 (소치의) 그림 빛을 나에게 대신 갖게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도리어 한번 웃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만... 나 수 2월18일

(頃付一書并朱夫子書壽字及憲冀同圖)不料船風遠漂 書物之未達 雖可惜 未及計此 驚甚尚不定 船中之人 竟無解讀觀音經一句者歟 春事日邈 禪安吉祥 有何好事相聞否 河面能不皺否 此狀頗放益甚 向山中法侶說道 殊愧赤耳 日爲許痴所困強 此病眼病腕 所收屏帖盈箱溢篋 皆其畫債而使我代償 如此 還覺一笑 餘姑不具 那更)

이 편지는 대략 소치의 세 번째 방문 시기인 1847년 2월 18일경에 쓴 것이라 짐작된다. 당시 추사는 눈병과 장독이 심했음에도 “날마다 허 소치에게 시달림을 받아 이 병든 눈과 팔을 애써 견디어 가며 쓴 병첩이 상자에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소치의) 그림 빛을 나에게 대신 갖게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도리어 한번 웃을 뿐입니다”라고 한 회언이 눈에 띈다. 이는 추사가 제자 소치의 화삼매(畫三昧)의 격조가 더욱 고상해짐을 칭찬해서 그리 표현한 것은 아닐까. 언표의 깊이가 더욱 돋보인다.

한편 추사는 주자의 친필본 “수(壽)”를 초의에게 보냈건만 배가 표류되어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따라서 초의가 중국의 신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통로는 추사였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시끄러운 시장통이 내게는 신성한 도량”

법현 스님 (저장거리 포교 열린선원장)

‘저장거리’ 가게가 죽 늘어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이곳은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향수가 그대로 묻어 있는 곳이다. 또한 역동적이면서도 그 내면에는 훈훈한 인심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 갈현동 역촌중앙시장의 대표적인 서울의 저장거리다. 지하철 3호선으로 이어지는 베드타운(Bed Town)들이 형성돼 있어 유동인구도 높은 편이다. 주위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장의 분주함은 살아 있다.

이곳에는 특별한 사찰이 있다. 바로 태고종 열린선원. ‘저장거리 포교’를 기치로 내세운 법현 스님은 2005년 6월 5일 이곳 시장통 상가 한 가운데에 작은 사찰을 개원했다. 스님은 꼬박 8년을 시장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전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은오프라인 포교의 첫 열린 만남

스님을 찾는 날에도 시장 상인과 손님들을 위한 백종 범위 준비로 부산했다. 공금했다. 왜 스님은 시끄러운 시장에서 전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을 던졌다. 망설임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 대부분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전법의 대상은 지위고하와 연령이 나눠지지 않았습니니다. 전 세계 불교 인구는 약 5억 명 정도입니다. 60억 인구 중 55억 명은 불교를 모른다고 봐야지요. 그들 모두에게 불교를 알리는 것은 한 계도 있고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안하는 것은 부처님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생업 중인 시장 상인과 오가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포교해 불자로 만드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이 사는 곳인만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호흡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곳에 선원을 열게 됐습니다.”

법현 스님의 열린 선원은 ‘저장거리 포교’의 시초라는 것 이외에도 ‘은오프라인 포교의 첫 만남’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지난 2001년 인터넷 카페 ‘열린 절’을 개설·운영해 온 법현 스님은 600여 명의 회원들과 불교 교리와 문화, 역사, 수행법 등을 나눴지만 함께 토론하고 수행할 공간이 필요했다. 수소문 끝에 사이버 교육공간의 실습장과 저장거리 포교 등 새로운 포교의 방편 도량인 열린 선원이 개원하게 된 것이다.

시장 식구들이 신도이자 도반

스님은 이곳에서 일찍 법회를 지양하고 토·일요일 정기법회와 17차례의 열린불교아카데미와 명상문화아카데미를 개최해 불교의 생활화와 현대화를 도모했다. 일찍 세상을 뜬 시장 상인들과 가족에 대한 친도제도 지내왔다.

이제는 신도 700명이 있는 도량으로 성장했지만 그 과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개원 당시 같은 층에는 기도원과 3층에는 교회와 있었다. 3층 교회의 경우 문을 닫았지만 처음부터 견제만 만만치 않았다. 심지어는 개원 인사를 하러 간 스님에게 3층 교회 목사는 교회 주보에 나온 예배시간을 보여주며 “시간을 피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시장에 웬 절이냐, 손님이 끊긴다”, “재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스님은 스스로 낮아져 그들의 눈높이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웃으며 그들의 대소사를 챙겼다. 살가운 스님의 인심은 그들의 마음을 녹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안면을 트고, 물건도 사주고 했지요. 우리 선원은 영세해서 공양주가 없거든요. 반찬가게 가서 내가 먹을 반찬도 사고, 떡집이나 과일가게에 가서 부처님에게 올릴 공양물도 샀습니다. 그들이 선원에 오든 안 오든 그것은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이 선원에 와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이름 그대로 ‘열린’ 도량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와 시장 구성원들은 한 식구나 다름

없지요.” 스님에게 시장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신도이자 도반이고 식구이다. 천도재 소리가 시끄럽다며 화를 내던 시장 상가의 시장은 이제는 “사찰이 잘 돼야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 신실한 신도가 됐다. 부처님오신날 연등 달기에도 시장 상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상인과 손님들에게 개원 8년차의 열린선원은 원래부터 자리하고 있던 뿌리 깊은 고목이 된 것이다.

‘불법 흥보’... 평생의 원력

사실 법현 스님은 지금까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교 포교에 매진하며 살아왔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평택 명법사 학생회 활동을 하며 처음 불교를 접한 이후부터 수행자가 된 지금까지 그랬다. 중앙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한 이후 시작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서는 서울지방부까지 역임하기도 했다.

대학생 때에는 평택에서 학교를 통학하며 버스와 지하철에서 매일 불교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불교 관련 자료를 정리해 차 안의 승객들에게 나눠주고 팔장도와 육바라밀 등 불교 교리에 대해 설명했다. 어떻게

2005년부터 갈현동 시장에

사찰 개원... 불법 흥보 앞장

“시장에 웬 절이냐”던 상인들

이제 신실한 버팀목 자리매김

복지지례위원, 공동체추진위원

지역공동체 위한 활동도 ‘열심’

‘불교식 차례 운동’의 첫 효시

탈핵 운동 선구... SNS 포교도

“불법은 생활 속에 있다” 강조

하든 유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싶었던 20대 청년의 순수한 열정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그래서였던 지 화를 내거나 반발하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

“승객들에게 당연히 양해를 구했지요. 그리고 불교 관련 자료를 나눠줄 때에도 관심이 없는 분들은 버리지 말고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것이었고, 대부분 돈을 주고 산 것들이어서 아껴야 했습니다. 실제로 대불련 활동을 할 때도 돈이 없어서 밤에는 은행에서 속직 대행을, 낮에는 도서관에서 장서 정리를 돕는 아르바이트를 해야할 정도였으니까요.”

태고종으로 출가하고 수행자가 돼서도 스님의 관심은 당연히 ‘포교’였다. 당시에는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에게 쉽게 불교를 전하고 싶었던 스님은 YMCA까지 찾아가 레크리에이션을 배웠다.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쉽게 불교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그런 인연으로 지금의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직을 1990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맡으며 협회 발전에 기여했다.

“레크리에이션 하면 춤, 노래, 게임 같은 걸 연상하지만 본질은 말 그대로 ‘재창조’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위한 여가 선용인 거죠. 그런 의미라면 참선만한 레크리에이션이 없습니다.”

더욱더 사회와 생활 속으로

법현 스님이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수식이 있다. 바로 ‘불교식 차례 올리기 운동’이다. 올해에도 9월 8일 열린선원에서 추석 차례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현스님은 차례 올릴 때 차를 올리지 않고 술을 쓰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더라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8cm]

94년도 보이차茶

본초강목수우(本草綱目拾遺)

“보이차고는 여러 가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보이차는 장을 원활하게 하여 그 움직임에 걸림이 없게 한다. 보이차는 까만 옷 빛깔과 같은데 술을 깨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다. 보이차는 음식을 소화시키고 담을 풀어주며 위장의 운동을 촉진하여 그 즙을 잘 생기게 하는 바, 그 효능은 참으로 크다. 입안에 목에 상처나 염증이 있으면, 차고를 5분정도 머금으면 다음날이면 낫는다. 테었을 때도 상처에 바르면 치료된다.”

사모채방(思茅採訪)

“소화를 도와주며 항행한 기운을 몰아내고 해독작용을 한다.”

백초경(白草經)

“풍이 생기거나 음식이 잘 다스려지지 않거나 화기가 일때.... 보이차 두잔을 끓여서 복용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운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청나라 오대운(吳大勳)의 전담견문록

“보이차의 효능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기를 다스린다. 막힌 것을 풀고, 풍한(風溼)을 치료한다. 사람에게 가장 유용한 물건이다.” 라고 극찬.

물리소지식(物理蘇知識)

“보이차는 찻서 덩어리로 만드는데, 서번에서 사 갔으며, 모든 물건을 잘 소화한다.”

수식거음식보(隨息居飲食譜)

“차는 약하게 쓰고 달며, 찬기운이 있다. 보이차는 맛과 기운이 강하고 세며 구토, 풍, 가래에 좋고 고기를 잘 소화시키고 장염이나 이질, 콜레라도 치료한다.”

94년도 산차 120g

차통(자사) 크기 : 높이 9cm × 지름 7cm

◆ 가액 : 11만원 (택배비 무료)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2011년 대한불교진흥원 법당에서 열린 법현 스님 초청 추석 시연 차례제.



법현 스님은 ... 운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서봉 스님을 계사로 1985년 사미계를, 덕암 스님을 계사로 1991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중앙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석사를 마치고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 박사과정 수료했다. 대학 재학 시절부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활동을 하며 불법 홍보의 원력을 세웠으며, 높은 신심으로 대불전 서울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태고종 총무원 총무부장, 교무부장, 사회부장, 교무부원장 등 중 단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는 열린선원장으로 포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운동을 90년대 초부터 전개해 왔다. 1997년도에는 천중사에서 제1회 불교식 차례시 연회를 개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이는 각 종단의 의식집과 의식관련 논문, 다도서적에 인용되고 있다. 2005년도에는 학술적으로 고찰해 보조사상연구원 정례세미나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충담 스님의 미륵부처님께 차올리기”가 바로 차례의 시초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종교와 사상인 불교와 유교가 모두 차례를 중시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초의선사보다 먼저 차와 관련된 시를 지었던 한재공 이목(李穆) 선생이 조상님께 지낸 제사 홀기(勿記)에서도 ‘국을 내리고 차를 올렸다(撤羹奉茶)’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종교와 사상에 관계없이 우리 조상들은 제사와 차례에 차를 올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례 없이 부처님께 꽃 공양을 올림으로서 부부의 인연을 맺는 ‘불교식 화혼’ 운동을 펼친 것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녹아들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들이다.

지역 사회 현안을 살피는 데에도 열심이다. 스님은 갈현2동 복지두레위원, 공동체복원추진위원 등을 맡으면서 마을 대소사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탈핵운동으로 활동 지평을 넓혔다. 불교생명윤리학회 집행위원으로서 탈핵 관련 단체 연대 운동과 서울·경남 탈핵학교에서 강연을 진행 중이다. 9월 3일에는 탈핵을 위한 춘천·양구리 도보기행에 동참하기도 했다.

기본이 되는 불교 교육과 포교

사회운동, 종교간 대화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스님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불자들이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알아야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어서다. 즉, 기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열린선원의 정식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4개월 과정의 명상문화아카데미에서 불교사상·의례의 기초 등을 배우야 한다. 2010년 사찰 자체의 ‘한글범요집’을 발간해 의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모두 대중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려는 시도였다.



2012년 은평구청장과 함께하는 이야기 콘서트에서 법현 스님이 갈현 2동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이번 백중 법회도 이런 스님의 철학이 반영됐다. 일반적인 사찰에서 백중은 조상의 은덕을 기리기 위한 천도재를 지낸다. 하지만 스님은 철석부터 백중까지를 특별정진기간으로 삼았다. ‘만남의 철학에서 보낸 백중까지 생사참구팔정도 정진’을 주제로 열린 특별정진은 매일을 팔정도의 가르침에 맞춰 정진하는 날로 삼아 수행도록 참가대중을 두려웠다.

“일반적으로 백중을 재를 지내고 은덕을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저는 정진을 기뻐한 기도와 의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함경에서 팔정도의 내용이 실린 경문을 찾아 모아 필요한 부분의 의식 속에 넣어서 9일 동안 정진기간에 독송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추신공양의 식도 법회의 마지막에 올렸습니다.”

최근 스님은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에 관심이 많다. ‘카카오 스토리’ 등을 통해서 스님의 짧은 글과 단상을 구독하는 사람만 수만 명에 달한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SNS를 포교에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불교 한글 의식집을 만드는 것도 스님의 목표다. 대부분의 불교 의식들이 스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대중들이 주체가 되는 의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종교에서 의식은 그 가르침을 의례화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님들이 진행하는 의식에서 대중들이 주제로 하는 수행 차원의 의식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 같은 취지의 한글 의식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불교는 더욱더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심우도의 마지막 장면은 ‘입전수수(立塵垂手)’로, 한 스님이 큰 걸망을 지고 저자거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깨달음을 얻고 거리로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는 경지가 부처에 이르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것이다.

지금도 대중에게 불법을 알리기 위해 시장풍을 분주히 오가는 법현 스님의 모습에서 심우도의 마지막 장면이 겹쳐진다. ‘깨달음을 멀리 있지 않다’는 해묵은 명제도 스님의 열린 공간 안에서 상존하고 있다.

글=신종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전법일기

영어담마캠프(2)

이번 영어담마캠프는 시작부터 느낌이 좋다. 특히, 외국인 교사들의 밝고 적극적인 반응과 참여가 전체분위기를 살리게 한다. 교사 연수가 있는 날 그들은 누구보다 일찍 도착했다. 서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캠프송을 배우자 흥겨워 지기 시작한다.

노래지도는 내가 지도법사로 있는 전문성악인들로 구성된 불교계유일의 혼성4부 중창단인 LMB 싱어즈의 단원이 해주었다. 서로 다른 인연으로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위해 모인 18명의 교사들과 12명의 봉사자들의 마음은 노래로 하나가 된다. 특히, 캠프의 주제인 마음모으기와 관련된 ‘Breathing in, Breathing out’ 노래를 배울 때 우리의 세포 하나 하나는 전율한다.

Breathing in, breathing out.(숨을 들이쉬고, 내쉬고)/Breathing in, breathing out.(숨을 들이쉬고, 내쉬고)/I am blooming as a flower.(나는 한송이 꽃처럼 피어나고)/ I am fresh as the dew.(나는 이슬처럼 신선합니다)/ I am solid as a mountain.(나는 산처럼 단단하고)/ I am firm as the Earth.(나는 지구처럼 단단합니다)/ I am free.(나는 자유롭습니다)

아이들이 이 노래를 통하여 마음속 꽃을 피울 생각을 하니 벽간 희열감이 밀려온다. 이번엔 교사로 참가하는 캐더린은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캠프에 자원했다. 안나 마리아는 헝가리 대사관에서 근무하며 한국문화를 좋아하며 한국어에 능통하며 5개 국어를 하며 특히 불교를 좋아한다. 라노는 카자스탄에서 서울대학교에

친구의 과오를 함께 나누는 108배



그림 · 박구원

은 교환학생이다. 연등축제에서 외국인 서포터즈로 활약하면서 사찰생활에 호감을 갖게 되어 지원했다고 한다.

영어담마캠프를 매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가 원어인민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만 잘한다면 아이들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불교에 대한 호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입식제와 사찰안내를 시작으로 친구사귀기 시간을 통하여 친해진 아이들은 어느새 형, 아우가 된다. 핸드폰이 금지된 상황에서 아이들은 서로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다. 관심을 놀리거나 과몰하는 것으로 표현하다 보니 쉽게 다툼으로 번진다. 분쟁을 말리고 돌아서가기 바쁘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아이들이 점점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어 걱적이다. 상황을 어떻

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 끝에 벌칙을 정했다. 앞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욕하거나 싸우면 108배를 해야 한다고 하니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드디어 4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놀렸다. 또한 한쪽에서는 남자아이들이 작은 물건으로 다투었다. 오후 일정이 끝나고 극락보전에 모여 108배의 벌칙을 받으러 오라고 했다. 안나가 자기도 108배를 함께 하겠다고 자원을 한다. 그럼 아이들이 해야 하는 절을 풀어주겠다고 했더니 캐더린도 동참하겠다고.

“안나와 캐더린 선생님이 더운 날씨에 108배를 하는 것이 안쓰러워 함께 해주신대요. 선생님들이하시는 만큼 벌 받은 친구들 절을 풀어주셨어요. 혹시 친구를 위해 108배를 함께 나누어 할 사람 있나요?”

그러자 3명의 아이들이 손을 번쩍 든다. “스님 저요.” 기특하다. 친구를 대신해 함께 108배를 하겠다고... “그래 이름을 적어보자.” 하니 아이들이 너도나도 같이 하겠다고 손을 든다. 감동적이다. 순간 한사람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음을 본다. 안나가 참으로 고맙다.

법당에 6명의 악동들과 친구를 돕겠다는 10명의 꼬마들 그리고 외국인교사 2명이 모였다. 우리는 열마만큼의 절을 해야 할지를 머리를 맞대고 계산을 했다. 1인당 35배만 하면 된다. 우리는 큰 소리로 ‘지심귀멸례 석가모니불’을 외치며 참회의 절을 했다. 온 도량을 울리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부처님은 불단 위에서 그저 빙그레 미소만 지으신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옴마니반메흠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흠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흠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흠을 마음속으로 읊조리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북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흠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금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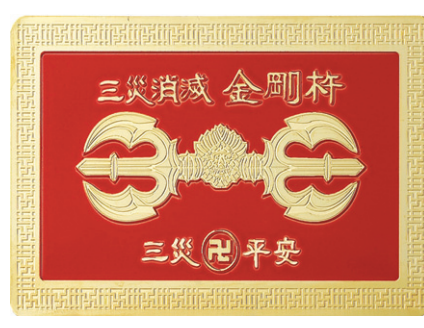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가격: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 삼재 조심

2013년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묶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기간 중 무사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지갑

소중함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함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이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북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 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반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